

## 경남지역 지대별 유망 최고품질벼 수량과 미질특성

성덕경<sup>1\*</sup>, 남진우<sup>1</sup>, 배성문<sup>1</sup>, 이성태<sup>1</sup>, 김영광<sup>1</sup>, 최용조<sup>1</sup>, 홍광표<sup>1</sup>

<sup>1</sup>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서론]

쌀 중심 식단에서 간편식을 선호하는 등 식문화가 변함에 따라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수입쌀의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고, 2015년부터 관세화가 진행되어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에는 기상 재해가 없어 연속적인 풍작으로 수확기 쌀값이 하락하고, 쌀 재고량이 늘어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총체적이나 타 작목 재배를 유도하고 있으나 대체작목의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의 소득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쌀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을 위하여 경남지역 지대별로 최고품질벼 품종을 현장실증 하였다.

### [재료 및 방법]

경남지역 지대별로 최고품질벼의 현장실증으로 남부평야지인 진주, 남부해안지 고성, 남부중간지 함양에서 각 지역에 위치한 RPC 원료곡 생산단지에서 기존 재배 품종과 비교하여 재배시험을 실시하였다. 평야지 진주에서는 ‘미품’을 시험품종으로 하여 기존 ‘새일미’와 비교하였고, 해안지인 고성에서는 ‘삼광’을 시험품종으로 하여 기존 ‘영호진미’와 비교하였다. 두 지역 모두 5월 초순에 파종하였고, 6월 초순에 이앙하여 10월 중순에 수확하였다. 중간지인 함양에서는 ‘수광’을 시험품종으로 하여 기존 ‘추청’과 비교하였고, 4월 하순에 파종하여 5월 하순 이앙, 10월 초순에 수확하였다. 기타 재배 방법은 표준 재배법에 준하여 생산단지별로 수행하였다. 수확한 쌀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준하여 수량 및 미질을 조사 분석하였다.

### [결과 및 고찰]

경남 3개 지역에서 유망 최고품질벼 품종 시험을 수행한 결과 남부평야지에서는 ‘미품’이 ‘새일미’에 비하여 도정수율과 완전미비율이 높으면서 단백질 함량이 낮아 미질이 우수하였다. 남부해안지에서는 ‘삼광’이 ‘영호진미’와 수량과 도정수율은 비슷하였으나 찌라기 발생이 많아 기존 재배품종인 ‘영호진미’가 브랜드화에 유리하였다. 남부중간지에서는 ‘수광’이 ‘추청’ 대비 완전미수율이 많으면서 도정수율이 유사해서 재배농가와 RPC 모두를 만족시키는 품종이었으며, 미질도 우수하여 소비자도 좋아할 품종으로 판단된다. 지역 RPC 브랜드쌀 생산단지에서 이러한 품종을 선택하면 우수 브랜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저자: Tel. 055-254-1223, E-mail. sdk201@korea.kr